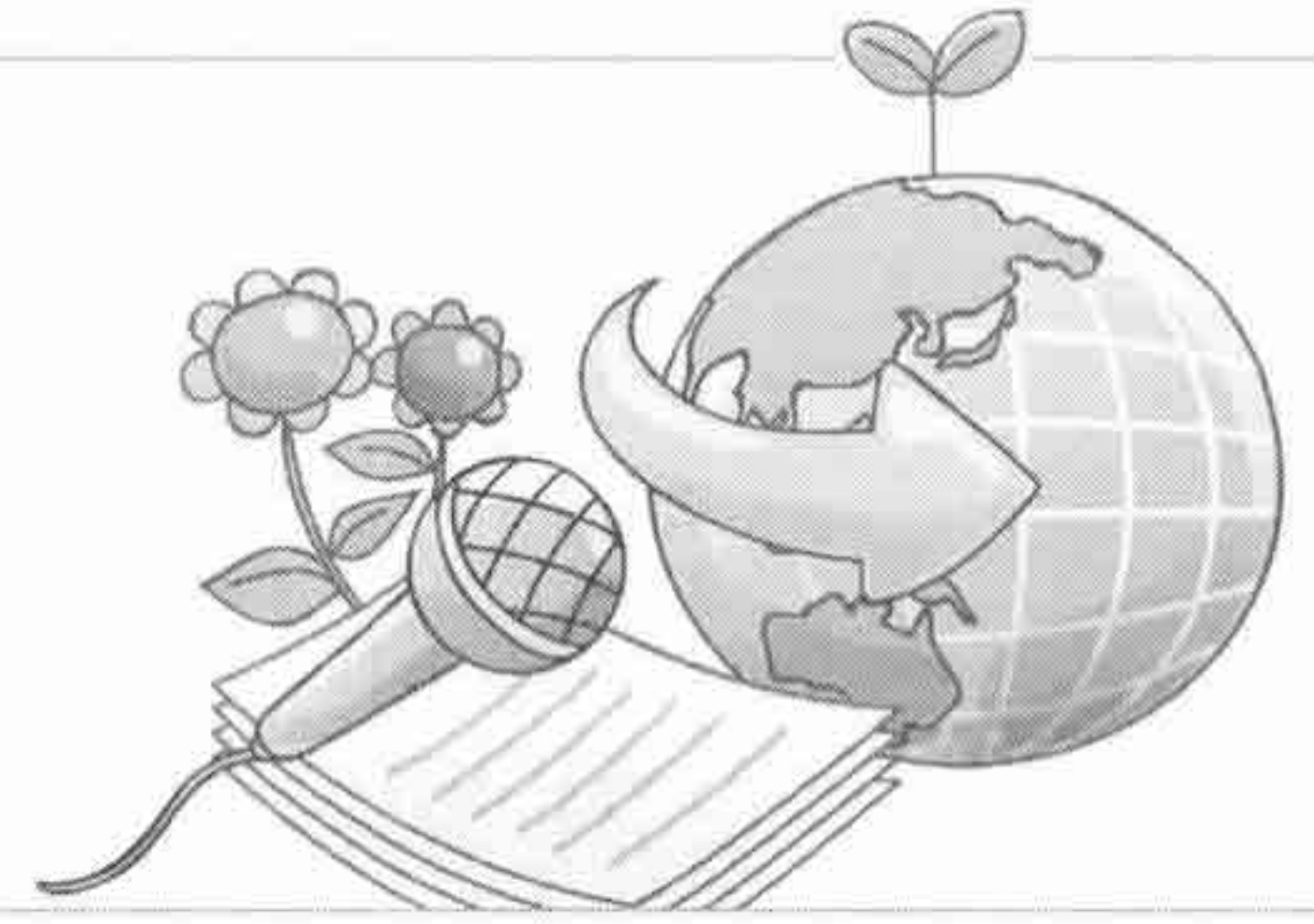




#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아시아 최대 인수공통난치병연구센터 설립... 브루셀라, A 등 퇴치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동물에게서 발생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가 전북대에 만들어진다.

전북대는 지난 8월 12일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난치병을 퇴치하기 위한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를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361여 억원의 자금을 확보,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연구소를 건립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250여 억원을 지원받아 관련 연구 기자재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완공과 동시에 전북대 수의대를 익산캠퍼스로 이전, 인수공통난치병연구센터와 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연구센터는 건평 4,030평 규모에 연구인력 70여 명, 관리인력까지 총 250여 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난치병연구센터이며 미국, 영국 등에 있는 유수의 연구센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이 센터의 건립을 위해 전북대는 현재 정부에 교수 10명, 조교 5명, 행정직 3명 등 총 18명의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둔 상태다.

- 헤럴드경제

닭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나는 닭!' 책자 발간



닭은 소, 돼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3대 고기로 뽑힌다. 남녀노소 두루 좋아하는 닭고기 튀김은 물론이고 치킨 샐러드, 여름에 몸보신을 위한 삼계탕 등 한국인들이 별미로 많이 찾는 고마운 동물이다. 또 상징적 이미지로, 재미난 우화로, 친근한 캐릭터로 인류의 생활 깊숙이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동물이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이나 상징적 이미지는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르다.

'나는 닭!'에는 닭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닭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기원은 어디이고 언제인지, 왜 아침마다 우는지, 어떻게 깎짓기를 하고, 어떻게 달걀을 부화시키는지 등을 사진 같은 그림

을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닭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가다 보면 어린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숨은 비밀은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나는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책은 한국 독자를 위해 원서의 프랑스 동요와 시, 말의 어원, 역사를 우리 것으로 찾아 바꾸었고, 아울러 한국의 토종닭과 사육 현황, 환경문제 등을 추가했다.

장 클로드 페리케 지음/얀 르브리 외 그림 / 최인령 옮김 / 청어람주니어

## 중국

### 닭고기 속 '콜라겐' 관절염 치료제에 비견

닭고기에서 추출된 2형 콜라겐 성분이 대표적인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일종인 메토티렉세이트(methotrexate) 소용량에 비견할 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이 확인됐다.

즉, 이 콜라겐이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강직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중국 허베이성에 소재한 안휘대학 의대의 링 링장 박사팀은 미국 류머티스학회(ACR)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관절염과 류머티스'誌 7월호에 발표한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닭고기 속 2형 콜라겐의 효과를 평가한 무작위 추출 이중맹검법 시험'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링 박사팀은 총 236명의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무작위로 2개 그룹으로 나눈 뒤 24주 동안 각각 닭고기 추출 2형 콜라겐을 1일 0.1mg씩 섭취토록 하거나, 메토티렉세이트를 주당 10mg 복용토록 하는 방식의 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12주, 18주 및 24주가 경과했을 때 눈에 띈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통증과 조조강직(morning stiffness) 증상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압통이나 종창(腫脹) 나타난 관절의 숫자도 감소했음이 눈에 띄었다.

물론 효과는 메토티렉세이트가 비교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토티렉세이트 복용 그룹의 경우 12주가 경과했을 때 전체의 58%가 미국 류머티스학회의 증상개선 기준(ACR20)을 충족시킨 것으로 파악되었을 정도. 여기에 비해 닭고기 추출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41%에 머물렀다.

24주가 경과한 시점에서도 이 수치는 메토티렉세이트 복용그룹이 83.02%, 콜라겐 섭취그룹에서는 68.57%로 각각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토티렉세이트와 콜라겐이 적혈구 침강속도와 혈중 'C-반응성 단백질' 등의 수치를 감소시켜 준 것은 물론이고 부작용과 그 정도는 콜라겐 섭취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약업신문



## KFC 다시 가격 인상

올해 3월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던 KFC가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섰다.

중국신문사는 KFC가 제품의 가격을 0.5(약 75원)~2.5위안 인상키로 했다고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FC는 각 매장의 가격표를 이미 새로 바꿨으며 적지 않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 뉴올리언스 닭다리 햄버거는 종전의 14위안에서 14.5위안으로 인상됐고, 에그타르트는 4.5위안에서 5위안으로, 아이스크림은 6.5위안에서 7위안으로 가격이 올랐다.

KFC측은 “지난 8월 18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단품과 세트 메뉴의 가격 인상폭은 0.5~2.5위안”이라며 “가격 인상은 최근 식자재 등의 가격과 노동비용,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각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FC의 가격 인상에 대해 맥도날드는 당분간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내 식자재는 물론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패스트푸드점들이 비용 증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월 가격을 인상했고 KFC도 지난 3월 가격을 인상한 바 있으며, 외국 패스트푸드점 뿐만 아니라 중국내 본토 패스트푸드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시아경제

## 미국

### 식약청, 가금류에 항균제 사용 금지 조치

미국 식약청(FDA)은 닭, 칠면조, 소, 돼지 등을 포함하여 식용 동물에 표시 내용 이외의 항생제 및 항균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FDA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매개식중독 박테리아병원균의 항균성 변종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법에 의거 FDA는 식용 동물에 표시 내용 이외의 약물사용으로 인한 공중 보건에 위협이나 그 가능성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FDA는 항생제의 표시내용 이외의 사용이 저항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인간 치료기능을 손상시키는 증거를 모으게 된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항생제류의 중요성은 알지만 FDA는 그러한 약품의 효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FDA는 식용 동물에 표시내용 이외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내성 변종의 위기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식용 동물에 항생, 항균제의 표시내용 이외 사용을 금하는 일은 인체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류의 효능을 보존함으로써 공중보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의견은 2008년 9월 2일까

지 제출할 수 있으며 2008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

- World PoultryNet

## 일본

### 'A부터 독감까지' 예방 약물 개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기전이  
일본 연구팀에 의해 밝혀져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의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내 효소는 상호간 강하  
게 결합돼 있는 3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  
다. 과거 많은 연구팀이 이 같은 효소의 구조를  
규명하려고 시도해왔으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  
도 이 같은 효소의 전체 구조를 세세하게 규명  
하지 못해 온 바, 지난 7월 28일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학병원 연구팀은 '네이처' 지에 이 같은  
단백질을 결정화한 후 단백질들이 서로 결합  
하는 부위의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단백질간 결합부위를 차  
단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팀은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비슷  
한 구조를 가지는 바, 이론적으로는 한 가지  
약물로 이 같은 바이러스 모두를 없앨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메디컬투데이

## 미얀마

### 3개국과 조류인플루엔자 근절 공조

미얀마는 국경지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근  
절을 위해 금년도 말부터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인도와 공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프로젝트로 FAO와 USAID의 약 1.5백  
만달러의 원조로 질병 모니터링과 정보의 교  
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는 2008~2011년까지 3년 계  
획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근절을 위  
해 FAO와 협력할 예정이다.

금년 4월 OIE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조  
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 미얀마를 조류인  
플루엔자 청정국으로 간주했다.

- Xinhua News Agency

## UAE

### AI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철새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기간이 다가옴  
에 따라 UAE 국가내의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중국의 신  
화통신이 지난 8월 24일 보도했다.

UAE 산하의 AI팀이 UAE 국가내의 해변,  
섬, 기타 지역 등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새  
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무작  
위 샘플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신화통신